삶으로 성경 쓰기 II-대칭이론

(갈라디아서 2:19~21)

19.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삶으로 성경 쓰기 II-대칭이론>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삶으로 성경 쓰기 II-대칭이론'
인간은 아름다움을 찾고 모방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본능은 어떻게 실현이 될 수 있을까요? 독일의 수학자 헤르만 바일은 아름다움의 근원을 대칭으로 말하면서, 자연과 예술이 아름다운 이유는 대칭을 충만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얼굴과 신체 구조도 대칭으로 만들어졌고, 신체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에 다비드 상이나 비너스 상을 떠 올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신체를 중심점으로 놓았을 때 좌우 대칭이 기본 구조입니다.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것을 보았는데 연예인들의 얼굴을 좌측이나 우측으로 일치시켜보는 것입니다. 본래 얼굴은 좌우가 약간씩 동일하지 않지만 좌나 우로 일치시켜 보았는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되고, 좌로만 일치시키거나 우로나 일치시킨 얼굴이 본래의 얼굴과는 너무나 다른데, 가장 본래의 얼굴과 유사하게 나온 것은 '김연아'라고 합니다. 건축물, 비행기, 자동차도 대칭의 개념 위에서 아름다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게 지어진 자연이 대칭으로 가득차서 아름답다면 하나님의 미적 감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역시 대칭일 것인데 바로 선민의 마음속 믿음을 중심점으로 이루어진 허락하신 성경과 선민의 삶입니다.
성경 속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믿음의 선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선민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손에

주어진 정경으로서의 성경과 대칭이 되는 성경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정경으로 주어진 성경이 우리 선민의 마음속 믿음을 중심점으로 해서 삶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다시 말해 선민의 삶이 성경이 되어 갈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대칭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일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보기 좋은 이유는 대칭이기 때문인데, 그러한 시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바로 성경과 선민의 삶이 대칭을 이루는 것입니다.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민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도 하나님의 마음에 아름다움을 드리기 위함인데, 우리의 삶이 정경으로서의 성경과 대칭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이의 엄마로 살아간다면 아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 앞에서 삶으로 성경을 쓰는 사람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성경을 쓰는 사람이고, 선생이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선생의 직분 안에서 성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일단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경을 쓰는 자들인데 이것이 바로 가장 원초적인 신분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성경을 쓰는 자들입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말씀을 세 가지 형태로 규정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로서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 손에 정경으로 주어진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위탁자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삼중의 형태로 이루어진 말씀은 서로 유기적이고 혼연일체로 역사하게 됩니다.
선포된 말씀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고 그 기록된 말씀의 주된 내용은 바로 계시로서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계시로서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듣는 자의 사건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혼연일체 속에서 말씀이 서로 연관되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네 번째 형태의 말씀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선민이 삶을 통해 써가는 성경입니다.
선민의 삶의 현장에서 3중 형태의 말씀의 유기적 연합의 역사가 열매 맺지 않으면 3중 형태의 말씀 자체의 색이 바래지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계시의 말씀인데, 내가 그 분과 함께 못 박힌 것은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포가 되었든지 기록이 되었든지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와는 다른 시점과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므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시장에 가도, 직장에 가도, 집에서 밥을 해도, 남편과 아내가 부부생활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 가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내 모든 삶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되어 성경이 됩니다. 나는 사업가가 아니고 엄마가 아니고 음악가도 아니고 성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재산의 유무와 신분의 고하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다 선민은 삶으로 성경을 쓰는 사람이어야 되고, 바로 내가 사는 삶이 곧 정경으로 주어진 성경과 대칭의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은 우리의 삶으로 쓰는 것은 정경은 아니지만 정경으로 정해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단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후3: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 판에 쓴 것이라”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가정과 시장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말씀이고 곧 성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성경이 되려면 바로 대칭 구조를 생각하면 됩니다. ‘대칭 구조’는 우리 마음이 가운데에 있고 한편에 정경인 성경이 있어서 대칭을 이루어 우리의 삶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대칭 이론은 성경을 대하는 우리 마음 상태인데 특정한 마음 상태(믿음)로 성경을 대하지 않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열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대할 때에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열리고 그 마음으로 살 때 성경이 되는데 대칭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인류역사상 변함없는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명품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문학인, 철학자, 인류학자, 사회학자도 읽을 수 있고 마르크스도 바로 성경에서 이론을 냈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 계발서로 인정하고 읽을 수 있고 돈 버는 법과 권력을 유지하는 법을 찾기 위해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동기와 이유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그냥 하나의 베스트셀러인 책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경으로 정해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려면 하나님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면서 그 인격적인 관계를 표현하실 때에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과, 변화 산에서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들렸던 음성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3: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독생자의 관계이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형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이신 하나님께서 관계 안에서 나를 부르실 때에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미루어 생각하건데 바로 '내 기쁨과 만족이 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의 근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려집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기쁘고 건강해야 기쁘고, 자식이 성공해야 기쁘고 내가 엘리트로 성공해야 기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해서 성경을 읽는데 절대 성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돈을 대체하시는 분이시고 성공을 대체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체하시는 분이신가 하면 돈을 기뻐하던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돈을 기뻐하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기쁨의 근원이었던 돈이 하나님으로 대체되는 것인데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읽어야 하고, 하나님 부자가 되려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돈이 벌리지 않아서 괴로워서 성경을 폈으면, 돈이 없어서 괴롭지만 실상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인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한다고 믿었던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님으로 대체시켜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만족이고 유일한 기쁨이고 유일한 행복의 근거라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열리게 되고, 이 믿음으로 살 때에 삶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 나갔을 때 모든 세상의 사업가들은 수익을 많이 올려야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나간 선민은 사업장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배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많이 찾아서 배 부르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자식을 키울 때에도 자식을 성공시켜서 기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배 부르고 기뻐하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열렸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살 때에 삶이 성경이 됩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해도 다른 사람들은 물건 많이 팔아서 기뻐하려고 하지만, 선민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으로 배 부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이유는 그 직장에서 돈 벌고 승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배불러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식을 주신 이유도 자식 잘 키워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앞에서 하나님으로 배불러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중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 배불러집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

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요1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칭이론을 계속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으로 유일한 기쁨과 만족과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이고, 그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구절의 궁극적인 존재 의미는 선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가야하는데 그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즉 모든 구절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한 길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모든 구절로부터 영적인 논리에 모순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도달하는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해석이고 그 해석이 곧 선포되는 말씀의 내용이 될 때에,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원형이 하나님과 독생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선민을 부르셔서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모든 사람을 독생자의 자리에 놓고 1:1로 관계하시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독생자의 자리에 도달해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기쁨과 만족의 이유로 모셔 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를 담은 이야기인데, 하나님만으로 기쁨과 만족을 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근거이기를 믿는다면 내 아들 독생자가 올 것이니 독생자를 바라보라’고 하신 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나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면 이 세상에 왔던 내 아들 독생자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생자에 대한 얘기나 십자가나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나 하나님이 기쁨의 근거가 되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 구절들에서 하나님 사랑을 목적으로 십자가를 발견해 내는 것이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에 오직 하나님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므로, 시장이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성경을 대할 때의 두 가지 믿음인 하나님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삶은 성경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 더 이야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삶으로 성경 쓰기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렇게 써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대칭이론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의 마음인데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서도

그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돈과 건강과 성공과 형통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이유가 된다고 믿었던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들을 대체하시는 분으로 당신 스스로가 그 자리에 들어서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서 배부르려면 독생자의 자리에 서야 하는데, 독생자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과 어디에서든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성경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대칭이론을 꼭 기억하시고 두 중심점이 되는 두 가지 믿음을 삶에서 적용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성경이 되도록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대칭이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고 편만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